

# Christian Dior 패션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

-모리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 현 미\* · 장 애 란<sup>+</sup>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sup>+</sup>

## Semiotic Interpretation of Christian Dior's Fashion Makeup

- Focusing on Morris' theories -

Hyun-Mi Kim\* · Ae-Ran Jang<sup>+</sup>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eju National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08. 10. 8, 심사(수정)일: 2009. 3. 2, 게재확정일: 2009. 3. 15)

###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akeup shown in fashion collections of Christian Dior based on semiotic theory of Morris. Morris's theory developed from semiotics of Peirce composed of syntactics, semantics and pragmatics. Therefore, in the case of analysis of fashion makeup, syntactics investigates signs of forms, colors, textures and materials of makeup, semantics finds out meanings of the signs of syntactics and pragmatics analyzes aesthetic characteristics which the signs of syntactics and the meanings of semantics symbolize.

Fashion makeup in Christian Dior Collections were expressed experimentalism sign, multi-culture sign and popularity sign.

Experimentalism signs were expressed with graphic makeup and cyber techno makeup and multi-culture signs were done with ethnic make up and retro makeup. In addition, goth make up and kitch makeup showed popularity signs. This study found that the three types of signs were considered to reflect aesthetics of the contemporary fashion. Also, this study could conclude that fashion makeup was able to be interpreted by Morris' semiotics.

Key words: fashion makeup(패션메이크업), morris' semiotics(모리스의 기호학), sign(기호), Christian Dior(크리스찬 디올)

## I. 서론

시대마다 여러 가지 예술의 장르는 동일한 심리적 영감 및 생리적 유형으로 구현되어 동시대의 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예술 목적의 동일성은 필연적으로 동일한 사회학적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 숙명적인 사실이다.<sup>1)</sup>

이미 복식은 사회 특성을 나타내는 총체적 산물로써, 동시대 문화를 대변하는 시각적인 표현 수단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시각적인 표현수단 중의 하나인 메이크업은 토탈 패션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욱이 최근 메이크업은 실험성이 가미되면서 독자적인 예술영역으로 확대되어 한 시대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대변해주는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우잔(Kowzan)<sup>2)</sup>은 연극에서의 기호(sign)중 의상, 메이크업, 헤어를 배우의 외관을 나타내는 기호로 분류하였고, 이 기호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메이크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의미를 전달하고 그 의미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작용력을 지닌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호란 어떤 대상이나 생각을 대신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대상체는 기호로의 환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기호들의 체계 또는 구조를 통해 의미를 밝혀내는 기호학(Semiotics)<sup>3)</sup>은 연구대상이 되는 상징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학문이다.<sup>4)</sup> 그러므로 기호학은 인간 의식의 인지 메카니즘과 의미화, 의사소통으로부터의 사회 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 및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모리스(Morris)는 기호학에 미학을 접목시킨 미학기호학을 토대로 기호를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으로 분류하였고, 기호 분석을 각각의 독립된 차원이 아닌 통합적 차원에서 행하였다. 모리스의 미학기호학은 김은경(2001)<sup>5)</sup>, 서승미(2005)<sup>6)</sup>, 류수현·김민자(2007)<sup>7)</sup>, 남수진(2007)<sup>8)</sup> 등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복식 연구에 적합한 이론임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메이크업이 미학기호의 일종일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메이크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메이크업에 관한 기술적인 테크닉이나 역사적인 고찰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더욱이 메이크업의 형식적 표현기법이나 의미적 측면에 치중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메이크업에 대한 모리스의 미학기호학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메이크업에 함축된 의미에 관한 기호적 해석은 물론 메이크업의 의미전달 대상체로서의 기호를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고 사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성이 강한 예술적 표현을 위해 획기적인 디자인 이미지와 메이크업을 조화시킴으로써 패션메이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메이크업을 모리스의 미학기호이론인 세 가지의 통합적 차원에서 분석·해석함으로써 메이크업이 미학기호임을 규명한 것은 물론 이를 이론적인 체계로 정립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려된다. 여기에서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메이크업을 분석하려는 이유는 크리스찬 디올의 컬렉션은 실험성과 창의력이 탁월하여 패션메이크업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컬렉션에서 발표된 패션디자인과 패션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문화와 미의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호자료으로써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1차적인 이론적 연구로 크리스찬 디올의 컬렉션에 표현된 패션메이크업분석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모리스의 미학기호이론을 고찰한다. 2차적인 실증적 연구로는 2001년 컬렉션부터 2005년 컬렉션까지 발표된 패션메이크업을 분석한 후 모리스의 미학기호의 세 가지의 통합적 차원에서의 기호적 해석이 가능한 작품들을 선별하여 해석한다. 이 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패션메이크업의 미학기호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도록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모리스(Charles Morris)의 기호학

기호(sign)란 기호학에서 의미의 최소단위를 말한

다. Morris, Peirce, Saussure, Locke 등은 기호를 ‘다른 어떤 것을 대표하는 무엇’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호란 어떤 대상이나 생각을 대신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기호학계에서는 Saussure와 Peirce를 현대 기호학의 두 비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기호학의 두 전통이 성립되었다고 한다.<sup>9)</sup>

소쉬르(Saussure)는 언어기호를 개념과 청각인상의 총체로 보고, 개념에는 기의(Signifié), 청각인상에는 기표(Signifia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정신적·추상적 관념인 기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미의 운반체가 필요한데, 의미의 운반체를 기표라 한다. 기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의미작용이라고 한다. 기호에 있어서 기의와 기표의 결합은 오랜 관습이나 사회적 제약에 기인하며, 이러한 기호의 자의성 때문에 기호는 가변적인 동시에 불변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sup>10)</sup> 다시 말하면, 기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표에 사용자들이 약속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므로 사용자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기호가 달라지며, 이미 만들어진 기호는 이미 부여된 의미와 기표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의미작용은 기호를 만들어낼 때(의미화 signification)에 일어나며, 기호의 의미를 풀이할 때(소통화 communication)에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의미화와 소통화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서 관습화된 규칙을 토대로 기호가 무엇인지를 의미할 때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여 소통이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sup>11)</sup>

예를 들어, 패션과 기호를 분석한 플로슈(Jean-Marie Floch)<sup>12)</sup>에 의하면, 샤넬의 토탈 룩에는 ‘샤넬 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호- 은색 코끝 구두, 금속 체인이 달린 누비 핸드백, 유명한 리틀 블랙드레스, 십자가 모양의 다색 브로치, 샤넬 투피스의 재킷, 리본 매듭, 동백꽃, 마지막으로 두 개의 C자가 각인된 금단추-가 있다. 이 기호들은 여성의 현대적인 활동의 자유와 자치성을 표현한 것으로, 일의 기표와 여성성과 부유함의 기의가 결합된 것이다. 그러므로 ‘샤넬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기호들’은 샤넬의 실루엣을 표현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필요충분적인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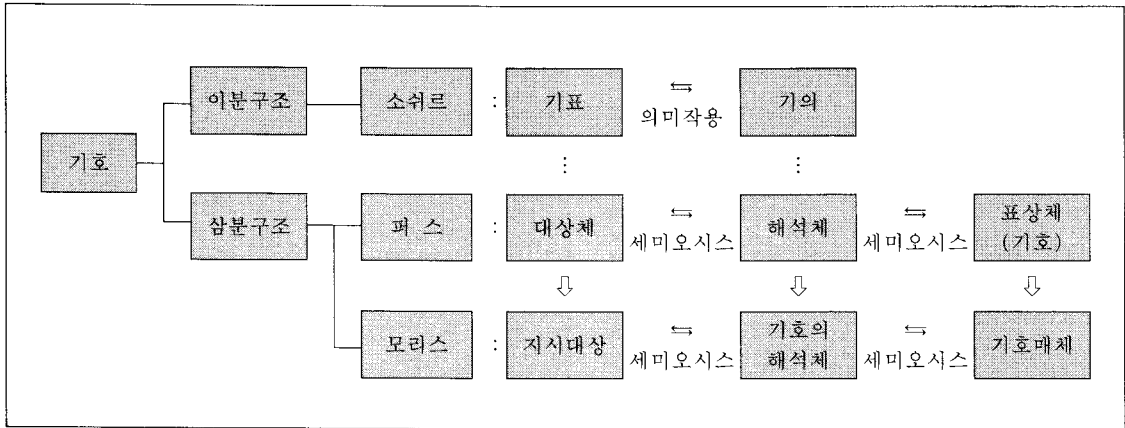
들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소쉬르가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이분구조로 설명하였다면, 퍼스(Peirce)는 기호를 특유의 삼원법으로 규정하여 범주를 나누었다. 퍼스의 기호는 표상체(Representamen), 대상체(Object), 해석체(Interpretant)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표상체는 어떤 이에게 어떤 것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것을 말하며, 기호(Sign)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상체는 기호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으로, 소쉬르의 기표에 해당하며, 해석체는 인간의 정신 속에서 생성되는 동격의 기호로서 소쉬르의 기의에 해당한다.<sup>14)</sup> 특히 퍼스는 소쉬르의 의미작용을 세미오시스(semiosis)<sup>15)</sup>로 설명하였는데, 세미오시스란 기호자체의 해석체를 생성하거나 산출하는 기호의 작용을 의미한다.<sup>16)</sup> 이상과 같은 퍼스의 기호이론을 도입하여 체계화시킨 학자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모리스이다.

모리스는 세미오시스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제3자의 중재에 의해 대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세미오시스의 4가지 요인으로는 ‘기호매체(Sign vehicle)’, ‘지시대상(Designatum)’, ‘기호의 해석체(Interpretant)’, ‘기호의 해석자(Interpreter)’가 있다고 하였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기호의 해석내용은 기호의 해석자와 표리일체의 관계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인 기호과정의 구성요소를 기호매체, 기호의 해석내용, 기호의 지시대상의 삼항 관계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퍼스의 기호(표상체), 해석체, 대상체에 해당된다.<sup>17)</sup>

따라서 소쉬르와 퍼스 그리고 모리스의 기호 구조 및 기호작용을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모리스는 세미오시스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들의 상호 관계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기호매체가 지시대상과 맺는 관계를 세미오시스의 ‘의미론적 차원’이라 부르고 이를 연구한 분야를 ‘의미론’(semantics)이라 명명하였다. 둘째, 기호매체가 해석체와 맺는 관계를 ‘화용론적 차원’이라 부르고 이를 연구한 분야를 ‘화용론’(pragmatics)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호매체가 다른 기호매체와 맺는 관계를 ‘통사론적 차원’으로 규정하고 그 연구를 ‘통사론’(syntactics)이라 명명하였다.<sup>18)</sup>



〈그림 1〉 기호 구조 및 기호작용

이 세 가지의 하위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모리스의 기호학이며, 기호의 완전한 분석은 위의 3가지 차원에서의 관계가 모두 명확해질 때에만 가능하다. 즉, 기호적 해석은 이 3가지 차원이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통합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이 순차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사론의 결과는 의미론의 시작을, 의미론의 결과는 화용론의 시작을 의미한다.

## 2. 패션메이크업의 기호적 접근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개념은 '메시지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이고,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이 아니라 메시지 또는 텍스트가 어떻게 의미를 파생시키기 위해 인간들과 상호작용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sup>19)</sup>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얼굴의 표면위에 행해지는 조형예술의 일종인 메이크업은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파생시켜 디자이너와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메시지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파생시킬지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 메이크업을 기호적인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패션메이크업은 어떤 이에게 어떤 것을 대신하는 기호 또는 기호매체라 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에 사용된 컬러와 질감, 선과 면의 형태 조합, 이를 이용한 표현기법은 의미를 운반하기 위한 기표

또는 지시대상이며, 패션메이크업의 표현에서 생성되거나 산출되는 의미는 기호의 해석체라 할 수 있다.

왈쉬래거와 신더(Wallschlaeger & Snyder)에 의하면, 모리스 기호학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기호가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어 나타난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특히 디자인에 있어 구조적 측면은 모리스 기호학의 통사론과 관련 있으며, 의미적 측면은 의미론과, 기능적 측면은 화용론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차원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지니므로 이러한 과정과 이론을 통해서 디자이너들은 더욱 쉽게 지각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커뮤니케이션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sup>20)</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리스의 기호이론인 통사론적 차원, 의미론적 차원, 화용론적 차원에서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의 패션메이크업 개념을 정립하기로 한다.

### 1) 통사론적 차원의 패션메이크업

통사론(Syntactics)적 차원은 기호매체가 다른 기호매체와 맺는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패션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을 위해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하인쯔 크로엘(Heinz Kroehl)은 회화를 기호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통사론 차원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회화의 구성 요소(점, 선, 형상)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회화의 구성 재료를 인식 가능케 하는 색채, 질감, 패턴 등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 단계는 구성요소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sup>21)</sup> 그러므로 통사론에서 기호는 그것이 구성되는 매체 즉, 구성요소와 구성 원리에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사론적 차원에서의 패션메이크업 해석은 하인즈 크로엘의 이론을 차용하여 메이크업의 조형요소인 소재, 질감, 색채에 대한 분석 및 조형요소들을 구조화 시키는 구성 원리에 대한 분석 즉, 메이크업의 형태분석을 통해 행하도록 한다.

## 2) 의미론적 차원의 패션메이크업

의미론(Semantics)은 기호매체가 지시대상과 맺는 관계로서 기호와 의미를 뜻하는 대상 사이의 상호관계로서 의미와 관련되는 영역으로 정의된다.

의미론은 지시되어진 대상들과의 지시 관계에 기초하여 기호들을 확정한다. 의미는 분명히 형태적이고 통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지만, 각각의 요소들은 이미 구성된 의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소들이 사용되는 문맥상에 의해서도 화용론적 의미가 부여된다.<sup>22)</sup>

엘름슬레우(Hjelmslev)와 바르트(Barthes)에 의하면, 기호의 의미는 외시의미와 내포의미로 설명된다. 외시의미는 일차적 의미로서 기표와 기의 사이에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비교적 제한된 관계가 설정될 때 나타난다. 내포의미는 이차적 의미로서 사전적인 정의나 일차적 의미 외에 덧붙여지는 의미를 가리켜 내포의미라 하며, 기표가 보다 더 방대하고 모호한 의미들을 불러일으킬 때 나타난다.<sup>23)</sup> 또한, 파노프스키(Panofsky)는 조형예술작품의 복잡한 의미를 구분하기위하여 해석(Schema)틀을 제시하였는데, 일차적 의미는 조형형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품의 느낌을 감지하는 것이고 이차적 의미는 관습적인 주제나, 일화, 혹은 알레고리를 파헤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sup>24)</sup>

모든 기호는 외시의미와 내포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외시 의미와 내포 의미의 비율이 다르다. 즉, 과학은 외시 의미에

의존하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예술은 내포 의미를 유발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므로 기호를 해석할 때는 외시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함은 물론이고 함축되어 있는 내포의미를 정확하게 유추해야 한다. 또한, 외시의미는 객관적이지만, 내포 의미는 주관적이며 문화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sup>25)</sup>

따라서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패션메이크업 해석은 통사론적 차원 분석된 메이크업에서 표현되고 있는 외시의미와 내포의미의 분석을 통해 행하도록 한다.

## 3) 화용론적 차원의 패션메이크업

화용론(Pragmatics)은 기호매체가 해석체와 맺는 관계로서, 특정한 기호체계가 사용되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기능하는 현상이나 효과를 다루는 것이며, 감상자에게 전달된 기호들은 심리적인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퍼스에 의하면 어떤 가설이나 관념의 의미는 그것들이 내포하는 실제적 효과들 속에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미론과 화용론은 불가분의 관계<sup>26)</sup>에 놓여 있으므로 화용론의 결과는 예술의 행동 가치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sup>27)</sup>

남수진(2007)은 모리스의 화용론을 전달의 기능과 공유의 기능으로서 설명하였다. 전달의 기능은 정서적 기능으로서 상징적 전달과 지시적 기능으로서 사실적 전달로 표현하였다. 공유의 기능은 의미의 공유와 예술적 공유로 세분화 하였다.<sup>28)</sup> 또한, 다카시 오사무에 의하면, 치장은 의복과 화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치장의 사회·심리적 기능 중 사회적 상호작용의 촉진·억제기능은 타인과의 행위교환으로 규정되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거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작용을 조종하도록 하는 기능<sup>29)</sup>을 말한다. 즉, 의복이나 메이크업 내포된 의미들은 동시대의 미적특성을 상징하며 전달된 상징성은 관객으로 하여금 심리적 변화를 유발시키게 한다.

그러므로 메이크업 기호는 다른 예술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코드화된 미적특성을 전달하는 전달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대중들이 예술적 특성을 공유하도록 하며, 그 공유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패션메이크업 해석은 패션메이크업의 예술적 전달 및 공유기능으로써 패션메이크업의 상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패션메이크업의 기호적 접근방법으로, 통사론 차원에서는 메이크업 디자인의 표현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 색, 질감 등의 요소 및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였고, 의미론적 차원에서는 메이크업에 함축된 외시의미와 내포의미를 분석하였고, 화용론적 차원에서는 패션메이크업에 표현된 미적특성 즉, 상징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찬 디올 패션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을 위해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을 독립된 차원이 아닌 상호의존적 차원에서 메이크업 기호를 총체적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 Ⅲ. 크리스찬 디올 패션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

문헌<sup>30)</sup> 및 선행연구<sup>31)</sup>를 근거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에 표현된 패션메이크업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메탈컬러나 메탈소재 그리고 신소재를 이용한 사이버 메이크업 스타일, 둘째,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그래픽 메이크업 스타일 등 독특하며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기법으로 실험성이 표현된 스타일, 셋째, 일본, 중국, 이집트, 아프리카 등 민족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에스닉 메이크업 스타일, 넷째, 과거 바로코, 로코코 시대의 역사적 요소들이 반영된 레트로 메이크업 스타일, 다섯째, 하위문화인 펑크에서 비롯된 고스메이크업 스타일, 여섯째, 대량소비를 위해 고안된 모조품 등을 이용한 키치메이크업 스타일 등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분석 결과는 물론 메이크업 특성 및 표현기법을 바탕으로 실험성, 다문화성, 통속성으로 유추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모리스의 기호적 측면에서의 메이크업 기호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패션메이크업을 실험성 기호, 다문화성 기호, 통속성 기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틀을 설정한 후 패션메이크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실험성 기호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찬 디올 패션메이크업 중 사이버 메이크업 스타일과 그래픽 메이크업 스타일 형태로 표현된 것들을 기호적 측면에서 실험성 기호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실험성 기호란 기존의 단순한 메이크업의 형태 및 표현기법이 아닌 추상적이고 실험성이 가미된 새로운 스타일의 메이크업 기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이버 메이크업은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실험적 소재를 사용하거나 미래지향적인 차가운 계열의 펄(Pearl)이나 글리터(Glitter)의 메탈릭한 소재 혹은 신소재를 사용하여 강한 질감을 표현하는 경향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림 2><sup>32)</sup>를 예를 들어 기호적으로 해석하면, 통사론적 차원에서 메이크업 형태는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눈 주위에 두었다. 즉, 노즈 새도우와 아이브로우를 연결시키고 눈의 앞부분에서 눈 중앙까지는 블랙 새도우로 칠하였고, 눈 꼬리까지는 연하게 그라데이션 하였으며, 마스크처럼 코 아래부터 목까지 골드색상의 시퀀(sequin)으로 콜라주 하였다.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메이크업은 메탈릭한 소재의 시퀀을 사용하여 얼굴이 점점 금속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비인간적 이미지의 암시적 표현과 스모키 눈 화장과 소재의 글리터링(Glittering) 효과에 대해 인공적이고 기계적인 소외 이미지라는 외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물질문명에 대한 조소와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내포 의미가 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메이크업에 사용한 메탈소재와 메탈컬러로 인해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해석을 미래성, 실험성, 과학성이란 상징성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sup>33)</sup>은 통사론적인 차원에서 메이크업 형태는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얼굴 전체에 두었다. 즉, 퍼플과 블루의 아이새도우로 그라데이션시켜 이마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눈과 눈썹의 영역을 모호하게 표현하였고, 퍼플색상의 볼 터치와 골드 펄로 립을 표현하였다. 특히 얼굴 피부색을 푸르스름하고 실버컬러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외시의미인 비인간화된 냉혈인간의 이미지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성의 상실과 그로인한 인간적인 면의

파괴는 물론 인간적인 세계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출발이라는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현대예술이 창조해낸 가장 특징적인 면인 예술을 비인간화시키고자 하는 경향<sup>34)</sup>이 메이크업 기호에 차용됨으로써 현실을 거슬러 나가려는 의지로서 비인간성, 미래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픽 메이크업<sup>35)</sup>은 얼굴의 구성요소를 해체하여 추상적 패턴이나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경향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림 4〉<sup>36)</sup>를 통사론적인 차원에서 메이크업 형태를 해석하면, 아이새도우나 아이브로우의 기존 형태를 무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눈과 이마, 코를 하나의 면으로 간주하고 블루 컬러를 사용한 반면, 눈 밑에는 자주색 직사각형으로 표현하였으며, 턱에는 메탈실버컬러의 오브제를 콜라주하였다. 자연의 형태가 아닌 인공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외시의미는 인공적이고 추상적인 인간 이미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메이크업의 규칙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메이크업 영역의 확대라는 내포의미가 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예술에 있어서 파괴는 부정적 신조라기 보다는 긍정적 개념으로서 과거예술에 대한 적대주의에서 비롯되며 이는 미래를 향한 미래파로 발전된다.<sup>37)</sup>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관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는 추상적이고 새로움과 기이함까지도 찬미하는 특성이 메이크업 기호에 차용됨으로써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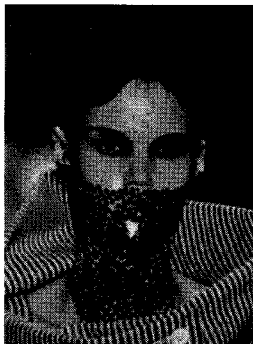
성, 실험성, 과학성, 비인간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 2. 다문화성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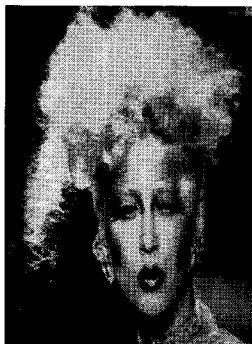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찬 디올 패션메이크업 중 에스닉 메이크업과 과거 역사의 메이크업 스타일로 표현된 레트로 메이크업을 기호적 측면에서 다문화성 기호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문화성 기호란 타 지역 문화나 과거의 문화를 수용하여 다문화적인 특성이 표현된 메이크업 기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에스닉 메이크업은 민족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메이크업으로서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에스닉 메이크업 중 일본, 중국, 이집트의 메이크업 특성을 반영한 스타일을 예로 들어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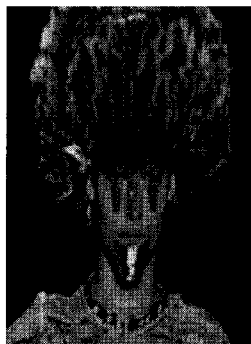
〈그림 5〉<sup>38)</sup>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sup>39)</sup>가 중국이나 일본여행을 회고하면서 오페라 '투란도트'나 '나비부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다. 먼저 통사론적 차원에서의 메이크업 형태를 해석하면, 얼굴형을 무시한 화이트베이스의 가부키식 스타일에 연필로 그린 듯한 가늘고 일자형의 아이브로우와 레드컬러의 아이새도우, 블러셔, 작게 축소된 인커브 입술을 표현하였다. 과거 일본전통의 가부키식 메이크업 형태를 보여줌으로서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외시의미는 이국적인 이미지와 함께 마치 작은 가면을 쓴 듯한 모습에서 유머러스한 이미지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그림 2〉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2002-03 F/W.



〈그림 3〉 Christian Dior Pret-a-Porter. 2004 S/S.



〈그림 4〉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2002 S/S.



〈그림 5〉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2003 S/S.

이는 서구 중심적인 메이크업에 동양의 메이크업 형태가 등장함으로써 주류와 비주류문화의 경계가 와해되고, 전통적인 메이크업 영역의 파괴라는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이분법적 사고가 해체되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메이크업 기호에 차용된 것으로 다문화성, 역사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6〉<sup>40)</sup>을 통사론적인 차원에서 메이크업 형태를 해석하면, 얼굴전체에 화이트 아쿠아 컬러로 페인팅한 후 아웃사이드를 블랙의 두꺼운 띠를 둘러 마치 얼굴의 형태를 축소한 듯하였다. 이마에는 레드컬러의 비닐소재를 붙였으며, 아이브로우는 기존의 아이브로우보다 위쪽에 사선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블랙 컬러로 노우즈 새도우 위치부터 관자놀이 부분까지 확장시켜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속눈썹은 인조 속눈썹과 중이속눈썹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원래 속눈썹 위치인 언더라인보다 밑에 붙였다. 립의 형태는 가부키식 메이크업의 립 형태로 변형한 것으로, 가로 길이는 축소시킨 대신 세로방향으로 확장시켰으며, 라인인 블랙으로 곡선이 아닌 직선적인 아웃라인으로 그리고 안쪽은 레드컬러로 칠하였다. 기존개념과 형식을 완전히 탈피한 강한 컬러감과 두꺼운 선을 사용함으로써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외시의미로는 중국의 경극식 메이크업과 일본의 가부키식 메이크업의 혼합된 이미지와 강인한 무사(武士)의 이미지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의 접목과 부적절한 위치의 전환에 의한 새로운 조형원리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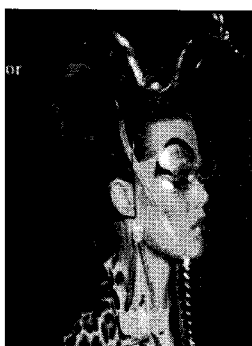
라는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현대예술의 퓨전경향이 메이크업 기호에 차용된 것으로 절충성, 다문화성, 역사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7〉<sup>41)</sup>은 카이로(Cairo), 아스완(Aswan), 루서(Luxor)왕의 계곡이 포함된 이집트 지역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한 것이다. 통사론적 차원에서 메이크업 형태를 해석하면, 눈 주위는 골드 펄과 코랄 비딩을 사용하여 표현되었으며 아이새도우 존(zone)을 아이브로우 위까지 확장하고 있다. 또한 검정 속눈썹은 과장되게 두꺼운 아치형으로 기존의 눈썹 위치보다 확장된 위치에 마치 시트지와 같은 오브제를 콜라주하였다. 립은 새도우와 동일한 골드 펄을 사용하였다. 특히, 파라오의 수염을 표현한 인공수염장식, 코브라 머리 장식을 사용함으로써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외시의미는 이집트 이미지, 클레오파트라 이미지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집트 분위기의 소재 사용이 단순한 재현이 아닌 현대적 재해석에 의한 변화 수용이며 시간성과 공간성의 해체라는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과거 역사에 대한 회귀와 서구문화 중심에서 벗어나 타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메이크업 기호에 차용된 것으로 역사성, 다문화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크리스찬 디올은 과거 역사의 메이크업 표현을 이용한 레트로 메이크업을 위해 19세기 말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공주 이미지로 표현함에 있어서 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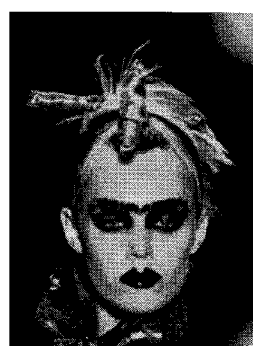
〈그림 6〉 Christian Dior Pret-a-Porter. 2003-04 F/W.



〈그림 7〉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2004 S/S.



〈그림 8〉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2004-05 F/W.



〈그림 9〉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2002-03 F/W.



한 주얼리 장식으로 과거 궁정의 사치와 호화로우음을 표현하였다. <그림 8><sup>42)</sup>을 통사론적 차원에서의 메이크업 형태를 해석하면, 피부표현은 화이트 파우더를 도자기처럼 두껍게 바른 위에 기존의 눈썹 위치보다 밝은 화이트 색상의 아이브로우를 각지게 그렸다. 또한 아이브로우와 같은 컬러의 과장된 화이트 속눈썹을 붙이고, 볼 위에는 검정 패치를 그리고 입술 중앙에 레드립스틱을 발랐다. 특히, 백남의 중독성에 의한 푸른빛이 감도는 흰 피부를 표현함으로써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외시의미는 세기말 공주의 퇴폐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유행하였던 얼굴의 패치장식, 그리고 일본 가부키식 입술 메이크업은 시간성과 공간성이 해체된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연결성이 없는 단편적 모티브의 복합적 사용에 의한 무의미성을 내포한다.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과거 역사에서 창작 모티브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메이크업 기호에 차용된 것으로 역사성, 다문화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 3. 통속성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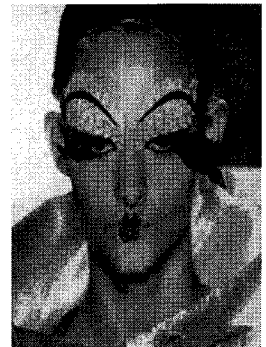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찬 디올 패션메이크업 중 고스 메이크업 스타일과 키치 메이크업 스타일로 표현된 것들을 기호적 측면에서 통속성 기호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대중예술은 통속성이 중심을 이루는 예술이며<sup>43)</sup> 대중문화는 엘리트문화를 제외한 하부문화를 포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통속성 기호란 기존의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의 형태 및 표현기법이 아닌 퇴폐적이고 해학성이 가미된 새로운 스타일의 메이크업 기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고스는 빅토리아 시대인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유행했던 괴기, 공포소설인 빅토리아 고딕 소설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고스는 핑크에서 파생된 것으로, 1970년대 말 영국에서 나타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하위문화를 말한다. 그래서 고스적 메이크업에서는 블랙 또는 레드블랙 컬러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이다. <그림 9><sup>44)</sup>를 통사론적 차원에서 메이크업 형태를 해석하면, 금속의 메탈소재조각들을 플라주하여 양쪽 아이브로우를 일자형으로 연결시켜 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아이 홀을 제외한 아이 존은 코올 메이크업 형태처럼 검게 칠하고, 입술 산을 인위적으로 각이 지게 강조하였으며 블랙컬러의 립스틱을 발랐다. 특히 어둡고 음산한 블랙컬러의 사용으로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외시의미로는 공포와 죽음의 이미지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고급문화와 하위문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추의 미를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미의 추구라는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현대예술의 이탈과 비순응 및 위반 개념들을 메이크업 기호에 차용함으로써 퇴폐성, 통속성, 다양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0> Christian Dior Pret-a-Porter. 2003-04 F/W



<그림 11> Christian Dior Pret-a-Porter. 2003 S/S

키치는 대량소비를 위해 고안된 대중 위락적 예술을 의미하며, 키치적 메이크업 형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 값싼 모조품을 사용하는 경향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림 10><sup>45)</sup>을 통사론적 차원에서 메이크업 형태를 해석하면,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눈 부위에 두었다. 즉, 눈을 중심으로 셀로판 소재로 만든 나비모양을 플라주기법으로 표현한 형태이다. 형광 주황과 연두, 소라, 핑크 등의 컬러풀한 색상의 셀로판지를 아이브로우까지 붙이고 언더속눈썹에도 인조 속눈썹을 붙여 눈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외시의미는 키치이미지와 나비모양에 의한 유머이미지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고급예술의 세련미와 고상함이라는 미적

특성에 대한 반격이면서 어둡고 무거운 현실에 대한 반동으로 문화예술에 진지함 대신 가벼움을 추구하는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예술은 대중과의 철저한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도화된 생활예술 속에서의 대중문화를 통해 경제적 만족을 얻고자 한다.<sup>46)</sup>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재미와 드라마틱한 표현 경향이 메이크업 기호에 차용

된 것으로 해학성, 통속성, 대중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1><sup>47)</sup>은 파리 리도쇼의 화려한 무희들에게서 영감을 얻어 표현한 메이크업이다. 통사론적 차원에서 메이크업 형태를 해석하면, 아이새도우 대신 화이트 레이스를 붙이고 그 위에 블랙 셀로판지로 만든 눈썹을 아치형으로 붙였다. 속눈썹의 한쪽은 빨간

<표1> Christian Dior 패션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

패션 메이크업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외사의미	내포의미	
실험성 기호	사이비	그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드색 시련의 콜라주 기법</li> <li>• 글리터링 효과</li> <li>• 마스크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화</li> <li>• 비인간적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문명에 대한 조소</li> <li>• 인간성 상실</li> </ul>	미래성 실험성 과학성
		그림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루와 퍼플의 피부표현</li> <li>• 아이새도우와 아이브로우의 영역 모호</li> <li>• 골드 필을 이용한 입술화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혈인간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미래에 대한 출발</li> <li>• 인간성 파괴</li> </ul>	비인간성 미래성
	그래픽	그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새도우와 아이브로우 영역의 연결</li> <li>• 기하학적 형태</li> <li>• 메탈실버컬러의 오브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적 이미지</li> <li>• 추상적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이크업 표현영역 확대</li> </ul>	실험성 과학성 비인간성
다문화성 기호	에스닉	그림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부키식 메이크업 형태</li> <li>• 얼굴의 축소 변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분위기</li> <li>• 가면에 의한 유머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와 비주류문화 경계와해</li> <li>• 메이크업의 영역 파괴</li> <li>• 다양성 인정</li> </ul>	다문화성 역사성
		그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부키식 메이크업과 경극메이크업 혼합</li> <li>• 과장된 종이 속눈썹, 비닐사용</li> <li>• 콜라주 기법</li> <li>• 위치의 전환</li> <li>• 입술의 모양 및 크기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일본 혼합 분위기</li> <li>• 무사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호의 접목 시도</li> <li>• 메이크업 영역확장</li> <li>• 새로운 조형원리 제시</li> </ul>	절충성 역사성 다문화성
		그림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트지 오브제 사용</li> <li>• 골드 필과 코달 비딩 소재 사용</li> <li>• 아이새도우 존 확대</li> <li>• 이집트 전통장식 오브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집트 분위기</li> <li>•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의 변형 수용</li> <li>• 단순재현이 아닌 변형하여 수용함</li> <li>• 시간성·공간성 해체</li> </ul>	역사성 다문화성
레트로	그림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 패치집</li> <li>• 화이트컬러의 아이브로우</li> <li>• 화이트컬러의 속눈썹</li> <li>• 푸른 기 있는 피부표현</li> <li>• 입술형태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기말 공주의 퇴폐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성 및 공간성 해체</li> <li>• 단편적 모티브의 복합적 사용에 의한 무의미성</li> </ul>	역사성 다문화성	
통속성 기호	고스	그림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탈소재</li> <li>• 블랙컬러의 새도우와 립</li> <li>• 양쪽 아이브로우를 일자형으로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포, 죽음의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문화와 하위문화의 경계 모호</li> <li>• 추의 미 도입</li> </ul>	퇴폐성 통속성 다양성
		키치	그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 메이크업 상태</li> <li>• 셀로판지의 콜라주 기법</li> <li>• 언더라인에 인조속눈썹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치적 이미지</li> <li>• 나비모양의 유머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예술이 미적특성에 대한 반격</li> <li>• 진지함 대신 가벼움 추구</li> </ul>
	그림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칭적 크기의 앳상블라주</li> <li>• 비즈, 깃털, 레이스 오브제 사용</li> <li>• 입술축소</li> <li>• 아이브로우 부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희 이미지</li> <li>• 유머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조형성 추구</li> <li>• 고급예술의 진지성과 엘리트적 특성 비판</li> </ul>	해학성 대중성 통속성

깃털을 다른 쪽은 검정깃털을 비대칭적으로 맞상블라주 하였다. 입술은 가부키식 메이크업에서처럼 입술을 작게 축소시켜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비즈를 붙여 표현하였다.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외시의미는 화려하고 유머러스한 무희이미지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메이크업에 새로운 조형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리도소라는 대중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고상한 취미에 대한 부정 및 고급예술의 진지성과 엘리트적 특성에 대한 비판이란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반부르주아적 저항성의 표현경향이 메이크업 기호에 차용됨으로서 대중성, 해학성, 통속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을 고찰한 결과,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에 표현된 패션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 V. 결론

패션메이크업은 한 시대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대변해주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의미를 전달하고 그 의미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작용력을 지닌 기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크리스찬 디올의 컬렉션에 표현된 패션메이크업을 기호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하여 모리스의 기호이론을 차용하였다. 패션메이크업 기호를 통사론 차원에서는 메이크업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요소의 구조적 측면 즉, 형태를 분석하였고, 의미론 차원에서는 메이크업에 함축된 외시의미와 내포의미를 분석하였으며, 화용론적 차원에서는 패션메이크업에 표현된 상징성을 분석하였으며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은 독립된 차원이 아닌 상호의존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해석하였다.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에 표현된 패션메이크업을 분석한 결과,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메이크업 기호를 실험성 기호, 다문화성 기호, 통속성 기호로 구분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성 기호는 그래픽 메이크업과 사이버 메이

크업 스타일로 표현된 메이크업으로 구성되고 있다. 통사론 차원에서 분석결과 신소재나 메탈소재, 메탈 컬러를 사용하고,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 형태를 의미론 차원에서 해석하면 비인간적, 인공적, 추상적이라는 외시의미와 함께 물질문명에 대한 조소와 인간성의 상실, 새로운 미에 대한 추구의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화용론적 차원에서는 실험성, 미래성, 과학성, 비인간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2. 다문화성 기호는 에스닉 메이크업과 레트로 메이크업으로 표현되고 있다. 통사론 차원에서의 분석결과 다문화성 기호는 시·공간을 초월한 여러 문화의 메이크업 소재나 방법을 차용한 메이크업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 형태를 의미론 차원에서 해석하면 비문명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서 타 지역 문화를 수용하고 과거를 재해석한 것이라는 외시의미와 이분법적 사고의 해체, 주류와 비주류문화간의 경계 와해, 메이크업 표현영역의 확대라는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화용론적 차원에서는 다문화성, 역사성, 절충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3. 통속성 기호는 고스 메이크업과 키치 메이크업으로 표현되고 있다. 통사론 차원에서의 분석결과 하위문화의 어둡거나 유치한 컬러의 사용,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메이크업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 형태를 의미론 차원측면에서 해석하면 반부르주아적 저항성의 표현을 위해 대중문화를 수용함으로써 키치이미지, 공포·죽음의 이미지 등의 외시의미와 함께 고급예술의 진지성과 엘리트적 특성들의 비판함으로서 고상한 취미에 대한 부정이라는 내포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화용론적 차원에서는 통속성, 해학성, 퇴폐성, 대중성, 다양성이란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결과 패션메이크업도 기호적 해석이 가능함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특정 디자이너 컬렉션에 제한적이었으나 다양한 디자이너로 연구 범위를 확대한다면 향후 패션메이크업의 체계적인 이론 정립은 물론 분석·해석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호세 오르테가 이 카세트 (1988). 박상규 역. *예술의 비인간화*. 미진사, p. 56.
- 2) 김치수 외 (2002).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64-366.
- 3) 기호학은 상징체의 창조와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소쉬르의 정의에 따르면 semiology이며, 페르나 모리스의 정의에 따르면 semiotics이다. 1969년 <국제기호학 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에서는 통일적으로 semiotic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운찬 (2005). *현대 기호학과 문화 분석*. 열린책들, p. 18.
- 4) 김경용 (1995).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p. 12-13.
- 5) 김은경 (2001). *기호학적 접근에 의한 20세기 패션의 특성 고찰과 복식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서승미 (2005).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류수현, 김민자 (2007). *판타지 영화 의상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슈퍼영웅의 파워 이미지를 중심으로-*. 복식, 57(10), pp. 112-128.
- 8) 남수진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식물라시옹 표현에 관한 연구-2001년~2006년 패션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장애란 (1995). *복식에 나타난 건축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기호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
- 10) Sanders, C. (1996). 김현연 역.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 어문학사, pp. 42-43.
- 11) 김운찬 (2005). *앞의 책*, pp. 50-54.
- 12) 시각정체성(Identité visuelle)이라는 책에서 자유로움과 조신함-샤넬 '토탈 룩'의 미학과 윤리학(La liberté et le maintien- Esthétique et éthique du 'Total Look' de Chanel)이라는 글로 패션과 기호에 대한 흥미적인 분석을 보여주었다.
- 13) 박성모 (2002).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소명출판, pp. 123-125.
- 14) 김경용 (1995). *앞의 책*, pp. 40-48.
- 15) 세미오시스는 <기호 작용>, <기호 과정>, <기호 현상>, <기호능>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 16) 김치수 외 (2002). *앞의 책*, pp. 29-39.
- 17) 소두영 (1991). *상징의 과학, 기호학*. 인간사랑, pp. 57-59.
- 18) 김치수 외 (2002). *앞의 책*, pp. 75-76.
- 19) 김민수 (1998).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출판사, pp. 67-72.
- 20) Wallschlaeger, C. & Snyder, C. B. (1992). *Basic Visual Concepts and Principles*. Wm. C. Brown Publishers, p. 384.
- 21) 하인쯔 크로엘 (1993). 최길렬 역. *현대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울: 도서출판국제, pp. 15-21.
- 22) Widdowson, H. G. (2001). 유석훈 외 옮김. *언어학*, p. 88.
- 23) 움베르토 에코 (2000). 김광현 역. *기호 개념과 역사*. 서울: 열린책들, pp. 129-131.
- 24) 이정원, 금기숙 (2008). 1960년대 록 스타 패션의 도상학적 해석. 복식, 58(6), pp. 73-74.
- 25) 김경용 (1995). *앞의 책*, pp. 48-51.
- 26) 한국기호학회 (1997). *삶과 기호(3)*. 문학과 지성사, p. 356.
- 27) Moeschler, J., & Reboul, A. (2004). 최재호 외. *화용론 백과사전*. 한국문화사, p. 44.
- 28) 남수진 (2007). *앞의 책*, p. 71.
- 29) 高木 修 (2005). 조기어, 유태순 역. *의복과 화장의 사회심리학*. 서울: 동서교류, p. 5.
- 30) 강경화 (2003). *메이크업종론*. 서울: APC.
- 31) 장미숙, 양숙희 (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후반 캐워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3). 김현미 (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1990년대 후반 캐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선정희, 유태순 (2001). *현대패션 및 메이크업에 표현된 대카당스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1(7). 장현숙 (2004).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200년 이후 패션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정은, 박수현 (2005).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플라주 형태 및 표현특성 연구 -1990년대 중반 이후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복식, 55(6). 오정희 (2005).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연구 - 90년대 이후 패션쇼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보라 (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2002~2006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귀영 (2008). *존 갈리아노의 패션 디자인연구-의상과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2) *Collezioni Haute, No.90*, Italy: Logos, p. 21.
- 33) *Collezioni danna, No.98*, Italy: ZanfiEditori, p. 30.
- 34) 호세 오르테가 이 카세트 (1988). *앞의 책*, pp. 63-68.
- 35) 김현미 (2001). *앞의 책*, pp. 54-55.
- 36) *Collezioni Haute, No.87*, Italy: Logos, p. 16.
- 37) 레나토 포지올리 (1996). 박상진 역. *아방가르드 예술론*. 문예출판사, pp. 89-90.
- 38) *Collezioni Haute, No.93*, Italy: Logos, p. 20.
- 39) 존 갈리아노는 1996년부터 크리스찬 디올 메종의 수석디자이너를 맡고 있다.
- 40) *Collezioni danna, No.95*, Italy: ZanfiEditori, p. 32.
- 41) *Collezioni Haute, No.99*, Italy: Logos, p. 6.
- 42) *Collezioni Haute, No.102*, Italy: Logos, p. 14.
- 43) 박성봉 (1995). *대중예술의 미학*. 서울: 동서출판 동연, p. 23.
- 44) *Collezioni Haute, No.90*, Italy: Logos, p. 20.

- 45) *Collezioni danna, No.95*, Italy: ZanfiEditori, p. 19.
- 46) 정원일 (1997). 아방가르드 담론에 관한 연구-포스트 모던시대의 네오아방가르드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9집*, p. 269.
- 47) *Collezioni danna, No.92*, Italy: ZanfiEditori, p. 42.